



가을 호랑이 '와카' 뒤집기

2022시즌 KBO리그 포스트시즌의 출발을 알리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선발 투수로 KIA는 외국인 투수 좌완 선 놀린(왼쪽)을, KT는 우완 소형준을 각각 예고했다. /연합뉴스



결전의 날이 밝았다. KIA 타이거즈의 선 놀린이 사상 첫 '업셋'을 위해 마운드 전면에 선다.

KIA가 13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KT위즈와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을 치른다. 정규시즌 마지막날까지 계속됐던 순위 싸움에서 KT가 LG 오지환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으면서 5-6패, 4위로 내려앉았다.

11일 훈련이 끝난 뒤 서울로 올라가 최종 상대를 기다렸던 KIA는 수원으로 이동해 결전의 무대를 갖는다.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맞는 '호랑이 군단'의 포스트 시즌은 놀린이 막을 연다. 5위 KIA가 1차전을 이겨야 2차전이 펼쳐지는 만큼 놀린의

KIA-KT,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오늘 수원서 열려
놀린-소형준 선발 맞대결 ... 황대인·나성범·최형우 타격에 기대

어깨가 무겁다.

놀린은 왼 종아리 근육 부상을 당해 두 달여 기량 자리를 비우면서 애를 태웠지만 후반기 팀의 '에이스'로 자리를 굳혔다.

놀린은 후반기 13경기에 나와 80.2이닝을 20실점(17자책점)으로 막으면서 1.90의 평균자책점으로 6승 3패를 기록했다.

KIA의 숨 막힌 5위 싸움의 마침표를 찍은 선수도 놀린이었다.

놀린은 지난 7일 KT와의 홈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7이닝 3피안타 무사사구 9탈삼진 1실점(비자

책)를 기록하면서 마운드 싸움을 벌였다. 이날 놀린은 7회 마지막 이닝에서 알포드에게 선두타자 안타를 허용하며 1사 1·2루에 몰렸지만,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한 뒤 관중석을 향해 양팔을 벌리고 환호성을 유도하며 챔피언스필드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또 놀린의 호투 속 KIA는 황대인, 최형우 그리고 김호령의 홈런을 앞세워 11-1 대승을 완성하면서 5위를 확정했다.

후반기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놀린은 KT와의 맞대결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줬다.

3차례 KT를 상대해 18이닝을 소화하면서 2.00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2승 1패를 기록했다. 공교롭게도 놀린의 앞선 세 번의 등판 상대가 모두 소형준이다.

두 사람은 4월 27일(수원), 8월 20일(수원), 10월 7일(광주)에서 선발로 맞대결했다.

첫 대결에서는 7이닝 1실점을 기록한 소형준이 6이닝 2실점의 놀린에 앞서 3-1 경기의 승리투수가 됐다.

두 번째 대결에서는 놀린이 5이닝 2실점을 기록하면서 5-2경기의 승리를 쟁겼다. 소형준은 5회까지 9개의 피안타를 맞는 등 5실점하며 패전투수가 됐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대결에서도 놀린이 승리투수가 됐다. 소형준은 이날 1-0으로 앞선 4회 나성범에게 내

야안타를 맞은 후 폭투, 포수 송구 실책 등에 흔들렸고 황대인에게 투런포를 맞으며 역전을 허용했다.

이날 소형준은 5이닝 7피안타 1볼넷 3탈삼진 4실점(1자책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올 시즌 소형준은 4번 만나 안타 없이 2개의 삼진만 남겼던 황대인이 마지막 대결에서 홈런을 날리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나성범은 올 시즌 소형준과의 대결에서 9타수 2루타 포함 5안타로 가장 좋은 타율(0.556)을 기록했다.

KIA는 5강 확정날의 기적을 살려 준플레이오프 무대를 밟는 첫 5위 팀에 도전한다.

놀린의 포효를 외일드카드 결정전 무대에서도 볼 수 있을지, 야구팬들의 시선이 수원에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최연소 150승·이정후 타격 5관왕

KBO 풍성했던 2022시즌 기록

SSG 시작부터 끝까지 1위 우승
이대호 최고의 자리에서 은퇴
안우진, 탈삼진 최동원 기록 넘어

2022 KBO 정규시즌이 11일 KT와 LG의 잠실 경기를 끝으로 720경기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마지막까지 치열한 순위 싸움이 전개됐던 올 시즌에도 풍성한 기록들이 쏟아졌다.

◇SSG, KBO 리그 최초 '와이어투 와이어' 우승

SSG는 개막전을 시작으로 정규시즌 마지막 순간까지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우승을 차지했다. 4월 2일 NC전 4-0 승리를 시작으로 개막전 이후 팀 최다 연속타이(10승)을 기록하는 등 초반부터 일찍 질주를 시작했다. 그리고 10월 4일 2위 LG가 KIA에 패하면서 정규시즌 우승을 일찍 확정했다.

◇'이중범 아들' 지운 키움 이정후, 부자 5관왕·최연소-최소경기 1000안타

키움 이정후는 올 시즌 타율, 안타, 타점, 출루율, 장타율 부문에서 5관왕에 등극했다. 아버지인 이중범이 1994시즌 타율, 안타, 득점, 도루, 출루율 등 타격 5개 부문에서 1위에 오른 데 이어 '부자 5관왕'이다. 이정후는 또 7월 28일 수원 KT전에서 최연소, 최소경기 1000안타도 채웠다. 이승엽의 종전 최연소(25세 8개월 9일)기록을 약 1년 9개월 가량 앞당겼고, 이중범의 최소 경기(779경기)기록에도 32경기 앞서면서 '이중범의 아들'인 아닌 '이정후'로 당당히 이름을 알렸다.

◇돌아온 KIA 양현종, '최연소 150승'

미국 도전을 마치고 KIA로 돌아온 양현종은 5월 19일 사직 롯데전에서 34세 2개월 18일의 나이로 최연소 150승을 달성했다. 정민철(35세 2개월 27일)보다 1년 여 앞선 기록. 또 6월 11일 광주 키움전에서 개인 153승을 기록하면서 이강철을 넘어 통산 다승 3위에 올라섰다. 양현종은 지난 7월 29일 광주 SSG전에서는 10승을 채우면서 역대 5번째로 8시즌 연속 10승을 달성했다.

◇키움 안우진, 삼성 오승환, LG 고우석-마운드 대기록 달성

키움 안우진은 올 시즌 224개의 탈삼진을 뽑아 내면서 2012년 한화 류현진 이후 10년 만에 200



양현종



이정후

탈삼진을 넘은 '토종 투수'가 됐다. 최동원이 보유한 국내 투수 한 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223탈삼진)도 38년 만에 넘어섰다. 안우진은 또 올 시즌 양현종과 전 구단 상대 승리를 거뒀고, 평균자책점도 2.11로 1위에 자리했다. 삼성의 '돌부처' 오승환은 세이브를 올릴 때마다 새 기록을 썼다. 올 시즌 31세이브를 올린 오승환은 개인 통산 370세이브를 장식했다. LG 마무리 고우석은 가장 많은 41세이브를 기록하며 역대 8번째이자 최연소(21세 1개월 21일) 한 시즌 40세이브를 달성했다.

◇타율 0.331, 23홈런, 101타점 '최고의 자리'에서 떠난, 롯데 이대호

'조선의 4번타자' 이대호는 은퇴시즌 타율 0.331(4위), 안타 179개(4위), 23홈런(공동 5위), 101타점(4위)을 기록하며 놀라운 성적을 작성했다. 또 개인 3600루타와 1400타점을 각각 통산 6번째, 3번째로 달성하는 등 마지막 시즌까지 기록을 쌓았다. 지난 8일 LG와의 홈경기에서 은퇴경기를 치른 이대호는 마운드에도 등장해 고우석을 투수 명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대호와 함

께 '타이거즈의 홈런타자' 나지완과 두산의 '우승 캡틴' 오재원도 올 시즌을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이외에 한화 페냐는 한 이닝 4탈삼진 타이 기록을 만들었다. 9월 2일 고척 키움전에서 김태진에 이어 푸이그를 낮아웃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포수 실책으로 1루 진투를 허용했다. 이후 페냐는 김해성과 송성문을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역대 10번째 한 이닝 최다 탈삼진 기록을 만들었다.

NC 마티니는 8월 7일 사직 롯데전에서 그라운드 만루홈런이라는 진기록을 달성했다. 2007년 채상병(전 두산)에 이어 12년만에 나온 기록. 마티니는 이날 7회초 만루 상황에서 우중간 담장을 직접 때렸고, 중견수와 우익수가 충돌한 틈을 타 홈까지 쇄도했다. 그라운드 만루홈런은 리그 통산 4번째이자, 외국인 선수가 첫 기록이다.

KT는 8월 14일 수원 삼성전부터 17일 수원 키움전까지 3게임 연속 끝내기 승리를 장식했다. 역대 최다 연속 경기 끝내기 타이이자, 리그 통산 5번째 기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유벤투스 탈락 위기...UEFA 챔스 강팀들 수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강호들이 혼쭐이 났다.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이탈리아)는 12일(한국시간) 이스라엘 하이파의 사미 오페르 경기장에서 열린 2022-2023시즌 UCL 조별리그 H조 4차전에서 홈팀 마카비 하이파에 0-2로 완패했다.

유벤투스는 3위(승점 3·1승 3패)로 내려앉아 16강 진출 가능성이 열렸다.

이 대회에서는 승점이 같은 팀은 맞대결 누적 점으로 순위를 가르는 가운데 하이파는 그대로 4위(승점 3·1승 3패)에 자리했다.

이스라엘 프리미어리그의 특급 미드필더인 오메르 아트질리가 멀티골을 책임지며 하이파의 승리에 앞장섰다.

전반 7분 크로스를 슈팅으로 마무리해 선제골을 넣더니 42분에는 프란체스코 피에로의 패스를 페널티 지역에서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추가골을 올렸다. 같은 조 파리 생제르맹(PSG)은 홈인 프랑스 파리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벤파카(포르투갈)와 1-1 무승부에 그쳤다.

PSG는 킬리앙 음바페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앞섰으나 후반 17분 후앙 마리오에게 역시 페널티킥으로 실점해 승점 3 획득에 실패했다.

나란히 2승 2무, 승점 8을 기록한 PSG와 벤파카는 각각 조 1위, 2위에 자리했다.

강팀들의 비보는 다른 조에서도 이어졌다. 공식전 무패 행진을 달리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맨체스터 시티(맨시티)는 G조 4차전에서 코펜하겐(덴마크)과 0-0으로 비겼다.

앞서 공식전 10경기 연속골을 기록 중이던 '괴



PK 차는 PSG 음바페.

/연합뉴스

물 골잡이' 엘링 홀란의 빈자리가 커 보였다.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홀란은 끝내 그라운드에 서지 못했다. 맨시티는 그래도 조 1위(승점 10·3승 1패)를 지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F조 샤흐타르 도네츠크(우크라이나)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의 경기 역시 1-1 무승부로 끝났다.

/연합뉴스

'국민타자' 이승엽, 두산 베어스 사령탑 물망

'국민타자' 이승엽(46) KBO 홍보대사가 프로 야구 두산 베어스 사령탑 후보 리스트에 포함됐다. 두산은 최근 후보군을 압축해 모기업에 보고했다.

구단의 의견도 함께 담긴 '후보 리스트'를 보고, 모기업이 결정을 내리면 두산의 새 사령탑 선임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두산은 11일, 8년(2015~2022년) 동안 지휘봉을 잡았던 김태형(55) 전 감독과 작별했다.

김태형 전 감독은 사령탑 선임 당시 '거물급'은 아니었지만, 7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2015~2021년)에 진출하고 3차례 우승(2015, 2016, 2

019년)를 차지하면서 '명장'이 됐다.

김태형 전 감독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두산은 '거물급 지도자'의 뒤를 이을 새 지도자를 고민했다.

이승엽 홍보대사는 현역 시절 '국민타자'로 불린 한국 야구가 낳은 최고 타자다.

KBO리그에서만 467홈런을 치고, 일본프로야구 시절을 포함해 한일통산 626홈런의 금자탑을 쌓았다.

통산 홈런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2003년 56개)도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